

# 변전(變轉)하는 공동체\*

- 오에 겐자부로의 문학을 중심으로 -

宋仁善\*\*

(e-mail: insunsong@hanmail.net)

---

## 目次

---

- |                            |                  |
|----------------------------|------------------|
| 1. 들어가는 말                  | 5. 반역과 자유의 청년공동체 |
| 2. '자율'에서 '관리'로            | 6. 맺음말           |
| 3. 원시공동체로의 소행(溯行)과<br>'국가' |                  |
| 4. 마을공동체의 재건과 '개체'         |                  |
- 

##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현대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그가 취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 소설 양식과 돌발적인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현실'에 기반한 '허구'를 그리며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에가 그리는 '개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개인을 둘러싸고 형태지우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만큼 오에가 그의 문학 속에서 변주를 거듭하고 있는 공동체 표상은 오에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실제로 오에는 그의 고향을 연상시키는 산골짜기의 마을공동체를 비롯해, 도시와 변방을 망라한 다양한 공동체들의 모습을 꾸준히 그의 소설 속에서 그려

---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 예정으로 수행되는 연구(KRF-2009-351-A00128)로, 그 중 1차년도 연구결과에 해당함.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일본근현대문학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의 신화와 전설의 전승 공간으로서 오에가 그린 ‘촌락’들은, 작가 자신이 ‘장소의 힘’이라고 표현했듯이, 주로 지형과 토속, 전승의 ‘장소’로서만 주목받아왔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혹은 그것을 둘러싼 ‘근대’라는 보다 근원적인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공동체’ 그 자체로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마을의 창건신화와 역사를 다룬 작품들에서 보이는 일견 원시적인 공동체의 스케치로부터, 이후 근대국가의 행정 체계로 편입된 마을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전후(戰後)의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하나의 비전처럼 제시되다가 부침을 거듭하는 미완의 대안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반복과 변주의 양상을 시야에 넣은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sup>1)</sup>

본 연구는 오에 겐자부로 문학 속에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공통점과 미묘한 차이점들을 검토해 그 흐름과 계보를 파악해보려는 시도이다. 오에 문학의 공동체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오에 문학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마을공동체의 변전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그것과는 또 다른 계보로서 존재하는 청년공동체의 조형을 살펴볼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지역과 혈연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면, 청년공동체는 지역과 혈연이 배제된 채 공동의 이념이나 비전이 그 공동체를 성립, 유지시키는 동력이 된다. ‘산간 농촌을 주요 배경으로 한 마을공동체’와 ‘도시와 근교를 활동 무대로 한 청년공동체’— 일견 상이한 듯 보이는 두 계보는 1990년대에 집필된 『타오르는 푸른 나무』 3부작에서 마침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을·교회·농장 연합의 새로운 공동체를 선보임으로써, 질적인 도약을 동반한 통합을 이루게 된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오에 문학 속에 그려진 공동체 연구의 첫

1) 공동체와 관련된 소수의 선행연구 중 磯貝英夫는 「農村共同体と都市砂漠」(『国文学』第24卷2号, 1979)에서, 오에의 초기 작품 속에 나타난 농촌 공동체를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의 일본의 도시생활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즉, 오에는 이 시기에 불모(不毛)를 본질로 하는 도시의 불행한 청년들을 그리는 한편, 마치 그 현실의 보상과도 같은 모습으로 농촌소년들의 공동체를 그리고 있으며, 이 양자(兩者)의 낙차는 이후의 오에의 소설 속에서 일본 근대를 가장 잘 상대화할 수 있는 문제 지점으로서 주목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로 오에의 중기 이후의 텍스트를 다룬 井口時男의 「森の谷間の柳田国男」(『早稲田文学』通卷230, 1995년 7월호, 早稲田文学会)는, 오에의 「골짜기 마을」에서 느껴지는 야나기타 구니오의 색채가, 실은 야나기타에 대한 작가 오에의 양의적인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다. 국내 연구로는 공동체의 폭력적인 구조를 논한 박유하의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論-暴力の構造と共同体-」(『일본학보』 제74집, 2008)를 들 수 있다. 박유하는 「만엔원년의 풋볼」에 그려진 공동체와 개인의 모습에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 내부의 잠재된 구조를 읽어내고 있으며, 그러한 폭력적인 구조가 가부장제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岩田英作 「大江文学における共同体と犠牲—「芽むしり仔撃ち」から「芽むしり仔撃ち」裁判へ」(『近代文学試論』29卷(1991))/吉岡亮 「大江健三郎『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発話・共同体・歴史」(『国語国文研究』通卷111(1999)) 등이 공동체와 관련된 오에 문학의 선행연구들이다.

단계로, 우선 『타오르는 푸른 나무』 3부작 이전까지의 공동체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변전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 2. ‘자율’에서 ‘관리’로—초기 소설의 마을공동체

오에의 초기작 『사육』(1958)과 『썩 뜯고 아이 치기』(1958)는, 산간의 마을공동체가 자율적인 소규모 생활공동체에서 국가의 말단 행정 단위로 변전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두 작품 모두 태평양전쟁 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산골짜기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생활의 장(場)으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래의 지역공동체로서의 마을과, 국가의 말단 행정 조직으로서 기능하는 인위적인 단위로서의 마을의 모습이, 혼재하고 갈등하는 작품이다.

『사육』은 전쟁 말기, 격추된 미국의 군용기로부터 낙하산으로 산골짜기에 떨어져 포로가 된 흑인병사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단편소설이다. 때마침 「마을(村)」은 홍수로 고립되어 상위 행정 단위인 「읍(町)」의 주재소나 「도청(県庁)」으로 흑인병사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게 된다. 마을 주민들이 읍내 또는 도청 등과 연결되지 않고 자율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짧은 유예기간에, 흑인은 「적(敵)」이 아니라 유순하고 무해한 「가축」같은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사육」되고, 점차 마을 아이들과 흑인병사 사이에는 인간적인 유대감과 우정이 싹튼다.

문화인류학자 요네야마 도시나오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무리’를 의미하는 일본어 ‘무리(ムレ, 群)’에서 유래했을 일본의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인 ‘무라(ムラ)’가, 점차 통치를 위한 행정구역으로서의 ‘무라(村)’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차상위의 행정단위에 통합되면서 근대 일본의 한 단위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마을(むら)”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히라가나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마을(村)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다 작은 생활의 장(場)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소(小)지역 사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지역 사회는, 지금까지 부락, 촌락공동체 같은 명칭들이 부여되어져 왔다. (중략)

그런데, 이러한 마을은, 메이지 22년(1889년)의 정촌제(町村制)의 시행까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적 단위였던 곳이 많았다. 그 수는 대략 7만을 넘었다

고 한다. 메이지의 정촌제에 의해서, 그것은 약 1500정도의 행정단위 안에 통합되었다. 일부는 시(市)나 읍(町)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쇼와 28년(1953년) 이래 진행된 정촌(町村) 합병에 의해, 많은 시(市)와 읍(町)이 탄생해, 행정단위로서의 마을(村)도 800정도로 줄고 말았다. 지금은 지도 위에서 마을(村)을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sup>2)</sup>

『사육』의 산골짜 마을은 읍내(町)와 고립되어도 생활에 크게 곤란을 초래하지 않는 자족(自足)공동체로 그려지고 있다. 촌장 노인 및 어른들의 회의가 마을을 통솔해가는 재래공동체다운 면모도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는 읍내 주재소나 도청(県庁)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산골짜 마을을 국가 조직의 말단으로서 위치시키는 동시에, 여전히 재래적인 성격이 남아있는 소규모 공동체인 마을을 상위 국가조직과 대비시키는 효과도 올리고 있다. 전쟁 말기, 포로가 된 흑인병사의 신병 처리에 대해 국가의 구체적인 지시가 산골짜 마을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야마네 겐(山根 献)이 지적했듯이 ‘국가→도청(県庁)→읍내(町)→마을(村)’로 체계화해 관리되는 근대국가의 조직적인 지역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준다.<sup>3)</sup> 흑인 포로 한 명의 신병처리는 조직의 맨 꼭대기부터 차례대로 계통과 순서를 밟아, 맨 아래 산골짜 마을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마을 아이들과 흑인 병사 사이의 친밀감은, 바로 그 계통화한 권력이 마을에 닿기 이전인 유예 기간 중에 싹튼다. 유예 기간 중의 마을은, 비록 행정단위로서의 ‘마을(村)’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어 있어도, 그 내실에 있어서는, 국가 및 상위의 행정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재래공동체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인 읍내 주재소의 서기가 상급 기관(県)의 지시를 받아 흑인 병사를 읍내로 이동시키기 위해 산골짜 마을을 방문하고, 마을 어른들이 읍이나 도청의 대리자로 나서서 그의 신병을 인도하려 했을 때, 흑인병사는 돌연 「《적(敵)》으로 변신」(p.130)<sup>4)</sup>해 마을 아이를 인질로 붙잡는다. 이제 자율적인 공동체로서 흑인병사를 「유레가 드문 훌륭한 가축. 천재적인 동물」(p.128)처럼 사육해오던 산골짜 마을은 갑자기 「전쟁에 뒤덮여버리고」(p.137), 「군대」를 대신해 「포로」를 끌고 가려는 마을 어른들은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근대 일본의 하부 시스템에 속한 자신들의 입장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마을 아이들과 흑인병사 사이의 ‘소속’을 떨쳐

2) 米山俊直「むらとその文化変化」『日本のむらの百年』日本放送出版協会、1967, pp.34-36

3) 山根献「アロジーとしての大江健三郎の小説の作り方」『葦牙』葦牙同人会 編 27号, 2001年7月 참조.

4) 大江健三郎「飼育」『大江健三郎全作品1』新潮社, 1973, p.130 ((번역은 이길진 역 『사육』(태학사, 1994)을 참조했으며, 페이지 수는 원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 작품은 페이지 수만 기입.

버린 개인적 친밀감도 깨져버린다.

상부 행정조직과 연락이 두절된 ‘마을’에서 한시적인 자율공동체를 경험한다는 『사육』의 모티브는, 초기 장편인 『썩 뜯고 아이 치기』에서도 비슷하게 변주되고 있다.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소문에 마을 주민들은 감화원의 비행(非行) 청소년들만을 남겨둔 채 안전한 이웃 마을로 집단 피신하는데, 한시적인 자율공동체는 바로 그 남겨진 비행 소년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화원 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마을의 출구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해버려, 마을에는 감화원 소년들과 조선인 소년, 엄마의 사체를 떠나지 못하는 소녀만이 남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나 소년들은 감금상태의 마을을 차츰 자율적인 공동체로 변모시켜나가고, 그 와중에 조선인 소년 집에 숨어있던 탈주병을 적발하기에 이른다. 상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자율공동체 안에서, 소년들은 나라가 일으킨 전쟁을 혐오해 전장으로부터 도망친 탈주병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대하기까지 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난 아주 잠시 동안 숨어있으면 돼.」하는 탈주병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열띠었다. 「나라가 행복하기만 하면 나는 자유인이 돼,」  
「당신은 지금도 자유롭지 않은가? 이 마을 안에서라면 무얼 해도 좋아. 어디에 누워 덩굴건 누구 한 사람 당신을 붙잡지 못해」<sup>5)</sup>

『사육』의 ‘전쟁’은, 흑인병사가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마을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전쟁」(p.137)이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썩 뜯고 아이 치기』는 모두(冒頭)부터 탈주병을 찾아 산을 뒤지는 마을 사람들과 헌병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썩 뜯고 아이 치기』의 ‘마을’은 『사육』에 그려진 ‘마을’에 비해 이미 국가 행정조직 체계 내에 더 깊숙이 자리 잡은 단위조직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쟁의 와중에 있는 마을의 촌장은 강압적인 모습으로 조형되어 있으며, 감화원 소년들은 트럭으로 집단이동 중일 때에도,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눈을 날카롭게 곤두세우며 거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탈주병을 찾았다.」(p.209) 그러나 마을이 텅 비어 상부 행정조직과는 상관 없는 아이들만의 자율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과 탈주병의 관계는 국가를 매개로 하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변모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비우기 전, 다시 말해 아직 마을이 전쟁을 수행 중인 국가의 말단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때, 다른 아닌 조선인 소년의 집에서 탈주병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조선인 가족들이 ‘일본국’이라는 공적(公的)인 영

5) 大江健三郎 「芽むしり仔撃ち」 『大江健三郎全作品1』新潮社, 1973, p.284 (번역은 이길진 역(태학사, 1994) 『사육』에 수록된 「썩 뜯고 새끼 쏘기」를 참조했으며 이하 동일 작품은 페이지만 기입.)

역과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느슨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탈주병이 발각된 후, 탈주병에게 가장 친근감을 보이는 존재가 화자(話者)인 ‘나’의 어린 동생이라는 점도, 어린 동생이 공권력의 영역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그래서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심성과 영혼을 간직한 오염되지 않은 ‘개체’로서의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네야마 도시나오는 일본인의 라이프 히스토리에 하나의 틀을 부여하는 ‘무라(마을)’를 설명하며,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서 축적된 관습이나 전통, 역사가 개인의 생활사를 제어하는 무게를 지니게 되고 개인 생활에 직접 간섭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무라’는 개인에게 하나의 소우주로 존재해」 왔다고 얘기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그러한 ‘소우주’는 적어도 메이지 이후 ‘국민’의 창출과 통치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행해진 인위적인 행정조직 개편 이전까지는 ‘국가’와 무관한 모습으로 개인의 생활사를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에의 작품 중 특히 근대 일본이 행한 전쟁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마을’은, 당연히 국가의 귀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생활공동체의 장(場)으로서만 그려지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른바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입지적 조건 및 그에 따른 계통상의 서열에 따라, 때로는 자율적인 생활공동체로, 때로는 국가의 말단 행정조직이라는 기능적인 모습으로, 양면성을 지닌 애매한 모습으로 조형되고 있다. 『사육』이 그 양면적인 성격을,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는 ‘산골짜 마을’의 혼재된 모습으로 그려냈다면, 『씩 뜯고 아이 치기』에서는 어른들이 통제하는 마을과 그 어른들이 모두 떠나 아이들만 남은 마을로 공간을 이분화해 보여줌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확연히 했다고 보인다.

### 3. 원시공동체로의 소행(溯行)과 ‘국가’

초기 작품에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중적 성격의 마을공동체를 그려낸 오에는, 중기 작품으로 넘어오면서, ‘신화와 역사의 전승’이라는 방법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원시공동체에 가까운 초기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우화적, 신화적으로 그리게 된다. 『동시대 게임』(1979)은 그 대표적 작품이다. 『동시대 게임』의 ‘산골짜 마을’은, 인류가 공동체에 대해 모색하고 겪어왔던 전 과정을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자, 한 주기(週期)의 문명의 시작과 진행이 담긴 문명사의 축소(縮圖)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마을 창건’은 근대일본

6) 米山俊直 『日本のむらの百年』 日本放送出版協會、1967, pp.38-39

의 ‘국가 창건’을 비틀고 축약한 패러디로도 읽힌다.

우화성은 특히 작품의 전반부에 두드러지는데, 『동시대 게임』의 「제2의 편지」에서는 문명의 시작과 진행이 ‘마을 만들기’라는 형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산골짜 마을’의 창건자들은 에도시대에 무슨 이유에선가 번(藩)의 권력에 불복해 배에 태워져 추방된 자들이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는 대신, 숨은 하구로 몰래 들어와 강줄기를 타고 산을 향해 거슬러 오른다. ‘창건자’들은 산골짜이 점점 좁아지고 이윽고 대암괴가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암괴를 폭파, 그 결과로서 드러난 습지를 개간해 번(藩)의 권력이 닿지 않는 숨은 마을을 창건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골짜 마을’이 바로 화자인 ‘나’의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창건자들의 뗏목이 맞닥뜨리게 된 ‘대암괴’와 그 너머의 ‘검고 냄새나는 물’은, 어떠한 식물도 생명도 허용하지 않는 한 세대의 문명의 끝, 혹은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의 카오스를 상징하고 있다. 대암괴 폭파 후 50일간이나 이어지는 대홍수로 기존의 악취가 다 씻겨 내려가고, 비로소 창건자들의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다는 설정 역시 ‘홍수와 창세(혹은 재출발)’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신화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이후 건설되는 초창기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치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溯行)<sup>7)</sup> 듯, 공동 노동과 토지공유제의 역사가 잠시 펼쳐진다. 마을 창건자들에 의한 대암괴의 폭파와 대홍수라는 신화적 재생 장치는, ‘원시공동체→농경→1가족 1주거 형태→빈부 격차→오시코메의 복고운동(혁명)→오시코메의 실각’ 등으로 전개되어, 마치 인류의 문명사가 시초부터 되풀이되듯, 우화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가령, 다음의 인용문은 악취만 풍기던 불모의 대습지를 배경으로, 먹이 사슬의 재생을 그리고 있다.

50일간의 큰비가 드러낸 분지 밑의 골짜기에 무수한 민물개가 생겨난 것이다.(중략) 것처럼 먹고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민물개는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 민물개를 먹기 위해 모여든 들새에다 작은 동물, 때로는 멧돼지까지 창건자들이 잡아먹게 된 것이다.<sup>8)</sup>

강줄기를—혹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새 땅에서 마을을 일구며 원시에 가까운 삶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상황이야말로, 『로빈슨

7) 이 소설에서 ‘거슬러 오르기(원문:溯行)’는 매우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키워드이다. 배를 탄 창건자들의 소행은 바다(하구)에서 산골짜이로써의 공간적 소행이자, 문명의 시초로의 시간적 소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8) 大江健三郎 「同時代ゲーム」 『大江健三郎小説5』新潮社, 1996, p.80 (번역은 신인섭 역 『동시대 게임』 (고려원, 1997)을 참조했으며, 페이지 수는 원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 작품은 페이지만 기입)

크루소』와 같은 이 소설의 우화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화성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속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이야기 전개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가령, 창건자들이 만든 이래 외부로부터 줄곧 가려져있던 은둔자의 땅 ‘산골짜 마을’도, 「메이지유신」과 1871년의 「폐번치현(廢藩置縣)」을 거치며 표면적으로는 「대일본제국」에 확실히 편입된다. 오누마 야스아키가, 에도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번(藩)과 촌(村)의 일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이후라고 지적하고 있듯이,<sup>9)</sup> 중반부 이후의 『동시대 게임』에서는, 그러한 급조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듯, 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해 있던 마을 사람들과, 거대한 ‘국가’와의 시소게임과도 같은 대항과 복속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일견 폐쇄적으로 보이는 분지형의 이 산골짜 마을은, 단일민족 국가—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를 표방하는 근대일본을 상대화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일본 민족의 순혈성을 강조한 단일민족론은 메이지시대 일본의 국민 통합에 기여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초창기 근대일본의 집단성을 담보하던 순혈성은, 『동시대 게임』의 ‘산골짜 마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화자인 ‘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한 신사의 신주(神主)이기는 하지만 국가 신도와는 동떨어진 마을의 토속신을 섬긴다. 게다가 그는 마을 창건자들로부터 혈통을 이어받은 토박이가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온 외부인이며, 더욱이 그의 조부는 러시아인이다. ‘나’의 어머니 역시 유랑 광대패의 일원으로 마을로 흘러 들어온 외지인이다. 어찌 보면 ‘정주(定住)’는 일본민족 정체성의 단초를 이루는 개념이다. 수렵과 채취로 표박의 삶을 영위하던 일본 열도의 선주민을 정복하고, 벼의 경작으로 ‘정주’하는 일본민족이 섬의 주인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일본민족기원론을 조소라도 하듯, ‘산골짜 마을’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신화와 전승을 기록하게 될 중대한 책무의 담당자인 ‘나’에게는, 러시아인 증조부의 혈통과 함께, 뿌리로서의 정주(定住) 공간을 갖지 못한 유랑 광대패 어머니의 피가 섞여 있는 셈이다.

작중 마을의 신화와 전승을 담당하도록 「아버지=신주」에 의해 지정된 ‘나’와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은 각각 쓰유기(露己), 쓰유미(露巳)인데, 이 역시 일본의 창건 신화에 등장하는 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연상시킨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듯, 일본 창건신화의 주인공들이 천상으로부터 땅에 내려온 ‘강림 신화’의 주인공이었다면, ‘마을’의 전승은, 반대로 아래로부터 강줄기를 타고 위

9) 大沼保昭 『單一民族社会の神話を越えて』 東信堂, 1986, pp.340-341(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p.25에서 재인용)



를 향해 거슬러 오르는 역방향의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작품 곳곳에 국가신도와 대치하는 이른바 잡신, 마을의 토착신이 암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메이지 일본이 기존에 존재하던 민간 신앙 레벨의 잡신들을 부정·억압하며 인위적으로 국가신도를 확립해간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또한 근대 일본의 패러디로서 기능하는 ‘산골짜 마을’의 위치를 나타낸다 하겠다.

하지만 『동시대 게임』은 단순히 ‘중심 대(vs.) 주변’의 유비(類比)구도로서 중앙 정부와 산골짜 마을의 대립을 나타내거나, 혹은 마을의 정체성 및 정치적 독립의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아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미국 대통령에게 ‘마을’의 독립을 원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누이(쓰유미)’의 말을 현지 특파원이 영어로 통역한 내용과, 그 통역에 대한 ‘나’(=쓰유기)의 논평이다.

<일본은 널리 믿어지고 있듯이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여러 국가를 세밀히 파헤치면, 미국 합중국외의 경우 이상으로, 인디펜던트한 단위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은 독립국인 하나하나의 상대국과 외교 관계를 다시 맺을 생각은 없는가? 그런 식으로, 압박당한 소국의 원조에 힘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을 게 아닌가? 우선 우리들 토지에 주목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일본국으로부터의 우리들 토지의 분리, 독립을 원조해주었으면 한다.> (p.289)

위와 같이 통역한 특파원의 머리에는, 오키나와 독립론자나 아이누 민족주의자의 강령이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던 것 같다. 즉 네가 쇠미한 마을=국가=소우주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한 말은,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이해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p.289)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현지 특파원에 의한 영어 통역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누이’의 진의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화자인 ‘나’는 즉각 알아차린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그 진의가 ‘나’에 의해 직접 진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타지에서 마을로 들어와 정착한 또 다른 인물들의 입을 통해 암시되고 있다. 즉, 작품의 시종을 장식하며 빈번히 등장하는 「마을=국가=소우주」라는 어구의 참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시하는 인물은, 마을 토착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아포 할아범’과 ‘페리 할아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타지 출신의 두 명의 천체 역학자였다.

아포할아범과 페리할아범 2인조는 나로부터 들은 전승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말하였다. 이 토지에 창건되어, <자유 시대>의 번영을 만들어 낸 후 점차 쇠미해 간 신세계는 단순히 숨은 마을이 아니라 독립한 하나의 국가이며, 다양한 층을 포함하고 있는 전승의 규모에서 소우주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p.303)

『동시대 게임』에서 ‘산골짜 마을’은 「마을=국가=소우주」 혹은 「우리들의 토지」로 지칭된다. 그리고 ‘나(쓰유기)’와 ‘누이(쓰유미)’, 아포와 페리 등 「마을=국가=소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은, 그들의 ‘토지’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마을 창건기 즈음의 ‘자유 시대’를 상정하고 있다. 『동시대 게임』에서의 ‘자유 시대’란 마을 창건기부터 메이지 유신으로 마을이 「대일본제국」에 복속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온전히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된다. ‘자유 시대’는 마을이 토지 공유제 등의 고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시기이며, 그 백 년 후 점차로 사유제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시금 공유제의 마을 창건기로 되돌아 갈 것을 선언하며 ‘복고 운동’ 등이 펼쳐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복고 운동’을 주도했던 ‘오시코메’는 실각하고 공유제는 정착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마을 바깥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점차 ‘산골짜 마을’의 존재도 외부에 노출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 시대’를 일종의 대안적인 이상향으로 하는 ‘국가이자 소우주로서의 마을’의 부활이란, 결코 오키나와나 아이누 민족의 독립처럼, 또 하나의 근대국가 단위로서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주변’의 근대적 성장·발전을 내세우는 개발논리도 아닐 것이다. 중심과 주변의 대립구도는 ‘주변’이 새로운 ‘중심’으로 위치 지워지는 순간, 뒤바뀐 중심과 주변의 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대 게임』에서 ‘일본’과 ‘50일전쟁’을 치르는 ‘마을’을, ‘중심’에 저항하는 ‘주변’의 구도로만 보지 말고, 대안 국가적인 또 하나의 대등한 공동체로 파악한다면, 무수히 반복될 중심과 주변의 대립구도는 유보된 채, 새로운 형태의 공존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 게임』에서 제시되는 ‘국가이자 소우주로서의 마을’이란, ‘중앙’을 포함한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자족적인 공동체로서, 주민들에게는 생애에 걸쳐 조화와 자연스런 질서에 의해 운행되는 우주와도 같은 터전을 제공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다. 예도 말기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위에, ‘산골짜 마을’의 신화와 역사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동시대 게임』은, 전설과도 같은 초기 마을공동체의 건설과 소실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마을공동체의 재건과 ‘개체’

『동시대 게임』의 이야기들은 에도시대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장대한 시간적 배경 위에서 펼쳐진다. 그리고 작중 화자가 비로소 마을의 신화와 역사를 기록해나가기 시작하는 때는, 근대화한 일본의 시골마을이 대부분 그러하듯, 예의 ‘산골짜 마을’ 역시 「이제 새로운 출산을 볼 수 없게」(p.82)되고, 쇠락의 징후를 분명히 드러내는 현대의 시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쇠락해가는 지방의 마을공동체를 현대의 시점에서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1987, 이하 『그리운 시절~』)에서 그려지기 시작한다. 물론, 과거의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념—오에는 이를 ‘마쓰리(축제)’의 정념이라고 얘기한다—을 오늘날에 되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동시대 게임』 이전에 쓰여진 『만엔원년의 풋볼』(1967)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만엔원년의 풋볼』에서도, 주인공인 두 형제에게 되돌아갈 장소가 되어준 1960년대의 ‘산골짜 마을(谷間の村)’은 이미 침체되어 있어, 그나마 백 년 전의 농민반란에 원형을 둔 ‘상상력의 폭동’으로서 밖에는 활성화되지 못했었다.<sup>10)</sup> 그런데 『그리운 시절~』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재생이 시도된다.

『동시대 게임』에서 「우리들의 토지」 혹은 「마을=국가=소우주」로 불리던 ‘산골짜 마을’은, 『그리운 시절~』에서 「근거지」<sup>11)</sup>라는 새로운 호칭을 획득한다. 주인공인 ‘기이 형(兄)’이 근거지의 「텐쿠보(テン窪)」<sup>12)</sup>에 기획한 「아름다운 마을」 플랜은 일본의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글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마을(美しき村)’을 차용했다. 작품 속에는 야나기타가 내건 입지조건과 텐쿠보의 입지조건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또한 『동시대 게임』에서 창건자들이 만든 마을의 입지조건과도 일치한다. 토종 소(和牛)를 번식·육성하고, 포도원을 만들어 민박을 하며, 닥나무를 이용한 재래지(和紙) 공장도 재건하여 토산품을 만들고, 연극 등 문화 활동도 조직하게 되는, 「텐쿠보에 역새지붕 집들로 이루어진 작은 촌락」<sup>13)</sup>(p.226)—‘기이 형’이 시도했던 60년대의 ‘아름다운 마을’—은, 『동시대 게임』의 창건자들이 새롭게 마을을 일구던 일화의 현대판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대 게임』과 『그리운 시절~』은, 두 작품 모두 ‘공동체’를 키워드

10) 磯田光一「テロルの寓話」『ユリカ』第6巻第3号, 青土社, 1974年3月号, p.77.

11) 강조점 원문, 이하 본 논문의 모든 강조점은 원문에 의함.

12) ‘높은 곳의 오목한 땅’이라는 뜻을 지닌 호칭

13) 大江健三郎「懐かしい年への手紙」『大江健三郎小説9』新潮社, 2008,(번역은 서은혜 역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고려원,1996)를 참조했으며, 페이지 수는 원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 작품은 페이지만 기입)

로 삼으면서도 그 무게중심은 미묘하게 달라 보인다. 『동시대 게임』에서는 ‘공동체’는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개체’는 후경화 되어 있다. 가령, ‘공동체의 역사와 신화의 전승’이라는, ‘아버지=신주(神主)’의 역할 지정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이던 ‘나’는, 결국 개인적인 차원의 삶을 포기하고, 전승의 기록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공동체에 일치시키고 있다. 특히, 집단 노동과 토지의 공유체로 일관되는 마을 창건기의 이야기에서는, 영웅적인 신화 속 리더들의 모험담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리더들과 마을 사람들의 삶이 공동체의 부침 속에 용해되어, ‘개체’보다는 ‘공동체’가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운 시절~』에 이르면, ‘기이 형’은 개체로서 확고히 설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공동체를 입에 올리며, 개인을 공동체의 전제조건으로서 환기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의 개체로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했다. (중략) 자신을 개체로서 주장할 힘을 비축하려 하는데 그 기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근거지! 그런 식으로 기이 형의 구상은 확립된 것이다. / 「나처럼 횡적인 연계도 종적인 연계도 없는 사람이 개체로서 실효성이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면 우선 근거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머릿속에 나의 근거지를 그려보니 그것은 자신보다 타인, 역시 개체로서 힘을 기르고자 하는 이들의 근거지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 동시에 우선 나의 근거지는 숲속 토지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근거지라고 하는 것은 굳이 토지, 장소 같은 것만을 말하는 건 아냐. 거기에 건설해 갈 구조체지. 동지들이 모이면 그들도 또한 근거지의 일부야. 요컨대 자네들이 근거지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리운 시절~』 p.212-213)

반면, 『동시대 게임』에서는 이를테면 ‘개인’이라는 단어가 ‘폐쇄성’ 혹은 ‘편향’이라는 단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다.

<복고운동> 기세가 고조됨에 따라 집단 노동을 통한 개인적인 폐쇄성의 부정은, 고대 생활의 회복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진다. 그 기세 속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편향의 부정(否定)을 축제와 같이 표현하기 위해, 골짜기와 <인근 마을>의 모든 가옥을 태운다.(『동시대 게임』 p.106-107,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동시대 게임』의 마을 창건기에 등장하는 ‘방화’, ‘제방 쌓기’, ‘마을의 수몰’은, 『그리운 시절~』에서는 기이형의 인공호수 건설과 그로 인한 미완의 ‘아름

다운 마을'의 수몰로서 패러디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인공호수의 건설이 「개체를 위해」(p.277), 「오로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p.281) 추진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시대 게임』에서 '개인적인 폐쇄성'과 '개인주의적 편향'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철저한 재편성을 위해서 획책되었던 제방 쌓기와 골짜기 마을의 수몰이, 『그리운 시절~』에서는 오히려 개인적인 내면의 응시와 영혼의 정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전체의 전체가 되는 개체로의 시선의 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시대 게임』과 비교하여 『그리운 시절~』의 공동체 묘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국가vs.마을'이라는 기왕의 표면적인 대결 구도가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동시대 게임』에서 '누이'가 주장했던 '우리들의 토지'의 독립이란, 또 하나의 근대국가 단위로서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새로운 차원의 대안 국가, 대안 공동체의 개념을 함축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와 '마을'의 동등한 레벨에서의 대결구도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간혹 마을공동체는 '국가성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성에 대한 모사(模写)'로서 오해될 소지를 다분히 잠재하고 있었다. 가령 『동시대 게임』에서, 국가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이중(二重)호적제'를 단죄하고 '산골짜기 마을'을 국가 체제 안에 온전히 복속시키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군대에 맞서 50일간 저항한 마을주민들의 행적은, '의거'나 '봉기' 혹은 '반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나'의 큰형인 '쓰유키치'의 천황 회견 신청을 목적으로 한 황거 접근 사건은, 마을사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오해'되고 있다.

쓰유키치 병사는 종전(終戰)의 조건에 대해서 1945년 8월로 돌아가 천황과 회담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패전에 의해 만주, 대만, 조선, 오키나와, 그 위에 가라후토부터 지시마(千島)에 이르는 영토가 일본으로부터 잘려 나갔다. 만약 그것들의 하나하나가 이유 있는 조처였다면 <자유 시대> 종말까지는 완전한 독립국이었고, 오십일 전쟁 패배까지라면 2분의 1의 독립을 지키고 있던 이 토지를, 종전을 계기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쓰유키치 병사가 천황에게 담판 지으려고 한 것이 뭐가 나쁘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토지는 쓰유키치 병사의 꿈을 이어받아, 일본국 정부에 독립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하와이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들 토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싶다. 그리고 우리들 토지는 망명자 수용을 헌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국과는 상반된 특징을 새기고 싶다. (『동시대 게임』p.283)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마을사람의 ‘오해’는 3장에서 인용한 미국 특파원의 ‘오역’과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 마을공동체의 ‘독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를 굳이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해’를 초래할 만큼 팽팽하고 동등한 국가와 마을의 대결구도가 그려지던 『동시대 게임』과는 달리, 『그리운 시절~』에서는 대안공동체로서의 마을의 재건을 그리면서도 국가와 마을공동체의 직접적인 대립구도는 보이지 않는다. ‘기이 형’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인공호수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의 반대파들과의 대립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와는 무관하다.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마을의 재건 움직임과 중단을 둘러싼 이야기는, 철저하게 기이 형과 마을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근거지 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던 ‘아름다운 마을’의 건설 계획은, 기이 형과 마을사람들의 토론과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국가’는 마을사람들과 대립하는 존재라기보다 아예 관심권 밖에 놓여져, 오히려 무용지물과도 같이 조형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간혹 언급되기도 하지만, 국가라는 중심 권력은, 『그리운 시절~』의 이야기 속에서는 거의 퇴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기이 형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짧은 사이클로 현금 수입이 가능하도록 숲을 이용하는 법을 구상하고—— <소득 배가 계획>이라는, 당시의 내각이 내건 슬로건으로부터 나온 구청물이 변방에까지 밀려오는 것을 기이 형은 마을 레벨에서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 용지(用地)와 원목을 스스로 제공하여 젊은이들과 시작한 표고 재배 현장에도 그녀는 다녀왔다. (『그리운 시절~』 p.224)

근거지의 이러한 새 사업에 기이 형은 저택 산림과 농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지금까지 같은 숲속에 살면서도 거의 교체하지 않았던 마을 젊은이들에게서 신망을 얻었다. 임업, 농업을 전환하는 계획과 실제 사업은 매일 저택에 모이는 젊은이들과 기이 형이 토론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시계루씨가 연극을 축으로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있기도 해서 젊은이들과의 결속은 한층 더 긴밀해졌다.(『그리운 시절~』 p.226)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지 운동’은 결코 지방자치체의 ‘조직’으로서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기이 형’ 역시 일의 진행을 앞장서서 견인하는 권력형 지도자로서 조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동시대 게임』의 전반부에 그려진 신화와 역사들이, ‘파괴자’나 ‘가메이 메이스케’, ‘오시코메’ 등 각 시대

별로 활약하는 영웅적 지도자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던 점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덴쿠보 일대가 기이 형의 사유지이며, 계획의 발안자가 기이 형이기는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근거지 운동의 모든 계획들은 마을사람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이루어져, 그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마을’은 중앙 정부와 무관한 코뮌의 면모를 보인다.<sup>14)</sup>

오에의 ‘코뮌’에 대한 기존의 언급은 주로 파리코뮌과의 관련 속에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축의(祝儀)로서의 반란을 이야기 할 때에 집중되어 있었다.

<코뮌 고유의 스타일은 <축제><sup>15)</sup> 스타일이다. ……파리코뮌이란 무엇인가. 그건 우선 거대하고 웅장한 축제였다. …… 파리가 어떻게 해서 그 혁명적인 정열을 살았던가.>(『그리운 시절~』 p.230-231)

별로 같은 생활을 하던 농민이 죽창을 베어내어 강줄기를 따라 내려갈 때 느낀 청결한 흥분, 그것에 따라오는 이매지네이션, 말하자면 마쓰리에서 느끼는 삶의 보람(라이프 인터레스트)이 반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써 주길 바래. 이 숲속의 코뮌을, 거대하고 웅장한 마쓰리를 말야. 우리들과 피로 연결된 가까운 조상이 어떻게 해서 그 혁명적인 정열을 살았던가를 연극으로 써달라는 거야.(『그리운 시절~』 p.231-232)

저항 공동체 ‘파리코뮌’을 ‘축제’로서 이해하고 있는 기이 형의 방식에 준한다면, 『만엔원년의 풋볼』이나 『동시대 게임』 등에서 그려진 촌민반란의 정념들 역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마쓰리’와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리운 시절~』에서는 그러한 ‘마쓰리’가 과거의 정념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가시적인 공동체의 건설·재현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쓰리로서의 반란에 주로 집중되던 오에의 ‘코뮌’에 대한 ‘이매지네이션’이, 『그리운 시절~』의 ‘근거지 운동’을 계기로, 글자 그대로 동시대의 이상(理想)적인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레벨로 시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마침내 『타오르

14) 주지하다시피 코뮌은 원래 중세유럽의 지방 자치체, 작은 행정 단위를 이르는 말이었는데, 1871년 프랑스 민중이 봉기해 세운 파리코뮌 이후 시민 자율적인 대안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60년대에는 히피 운동과 결부된 공동세대나 집단생활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였으며, 비물질주의적이며 비경쟁적인 실험적 생활양식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최협 외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선인, 2001, pp.41-42 /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p.43 / 피터·블루커, 有元健訳 『文化理論用語集』新曜社, 2003, p.84 참조.

15) 오에의 원문에는 ‘祭’라는 漢字 위에 フェー이라는 덧붙이기가 달려 있는데, 이는 祭礼 혹은 祝儀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 fête로 보인다.

는 푸른나무』 3부작에서, 농장과 교회 등을 아우르는 실험적 코핀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다.

## 5. 반역과 자유의 청년공동체

한편, 오에 작품 속 공동체에서 ‘저항’, ‘반란’, ‘강권에 대한 불복’ 등의 이념은 지역공동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에는 이미 이전의 작품들에서 마을공동체와는 또 다른 계보로서 청년공동체를 그려왔다. 공동의 목표를 지닌 채 지속적·단속적으로 주거를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집단생활은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말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70년대 초에 발표한 장편 소설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러』(1973, 이하 『홍수는~』)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유항해단’은 반(反)권력을 지향하는 젊은이들로, 그들의 공동의 목표는 ‘종말’을 피해 배를 타고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탈출하는 것이다. 계급이나 서열이 없고 단지 역할 분담만이 존재하는 그들의 공동생활은 「무정부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구조화되지 않은」<sup>16)</sup> 히피 코핀의 성격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으며, 이는 68년 5월 프랑스 파리를 필두로 세계를 달구었던, 젊은이들의 반역이라는 당시의 시대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sup>17)</sup> 이후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청년공동체의 비중과 초점은 각각 다르게 그려지고 있으나, 공권력에 반대하는 반체제의 성향과, 비교적 자율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오에 작품 속 청년공동체를 가로지르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근대를 성찰하는 문명비판과 에콜로지의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청년공동체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콜로지의 색채들은 『홍수는~』을 제외하면 주로 후기 작품으로 진행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오에가 그린 청년공동체의 초기 모습 중에는 전공투(全共闘)의 잔류파나 좌파적군의 공동생활을 제재로 한, 또 다른 계열의 청년공동체가 눈에 띈다. 가령 『홍수는~』의 ‘자유항해단’에는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소거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작품인 『핀치러너 조서』(1976)에 등장하는 ‘야마매 군단’이나 『하마에게 물리다』(1987) 연작에서 언급되는 ‘아사마 산장 사건’의 연합적군<sup>18)</sup>들은 모두 ‘혁명’이라는 공동의 목표, 혹은 그 이후에

16) 테니스 포플린 「코핀」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p.172

17)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러』의 청년공동체 ‘자유항해단’의 성격과 196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줄고 「エコロジーの観点から見る〈終末〉の含意 —大江健三郎『洪水はわが魂に及び』論—」 『일어일문학연구』 제66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년 8월 수록)을 참조.

18) 70년 일본 내 신좌익계 인물들이 검거된 후 잔류파들 중에서 노선을 달리하는 두 개의 당파에



전개될 공동의 유토피아를 위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주로 계곡을 따라 행군하는 「야마메 군단」의 단속적인 공동생활은 중국혁명의 ‘장정’에 빗대어져, 상징적인 의식으로서의 ‘장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핀치러너 조서』속에서 이들 「개방적인 게릴라」<sup>19)</sup>들은, 주로 권력으로부터 핵(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민운동의 지원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황당무계함’이라는 본 작품의 일관된 코드 탓에, 일본 현대사의 무거운 상처로 남은 좌파적군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를 두고 표상되고 있다. 오히려 70년대 초, 산악 아지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실제로 내부 린치 사건이나 인질 사건을 일으킨 좌파적군에 대한, 사건 발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오에의 작가로서의 소회와 ‘아사마산장 사건’의 소설적 재구성은, 『하마에게 물리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후일담 형식을 취한 이 연작 소설집 역시, 좌파적군들의 산악 아지트 공동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이 연작 소설들은 그들의 과격한 ‘방법’에 대한 비난 일변도의 사건 당시 세론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들 집단이 미래에 대해 지녔을 이상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행동가가 아니라 소설가로서 대립과 격동의 시간들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던 작가 오에의 심경이, 작중 소설가 ‘O’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연작 소설집 『하마에게 물리다』는 비교적 ‘공동체’ 그 자체에 무게 중심이 주어졌던 『동시대 게임』과, ‘개체’에 대한 환기 및 실제적인 ‘마을’의 부활이 시도되는 『그리운 시절~』 사이에 집필된 작품들로 묶여있다. 『하마에게 물리다』에서 후일담 형식으로 언급되는 당시 좌파적군의 산악아지트 공동생활과 내부 권력에 의한 린치 사건은, 이들 청년 집단의 성격이 결코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반(反)권위·반권력 지향의 이상적인 코뮌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거기에는 「뭔가 장대한 대의명분에 자기 동일화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를 구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든 타인에게도 과급시키고자 하는 충동을」<sup>20)</sup>잠재한, 공동체의 또 다른 초상도 보인다.

의해 연합적군(聯合赤軍)이 조직된다. 이들은 주로 군마(群馬)현의 산악지대를 아지트로 삼아 무장 게릴라 전술을 채용하며 명맥을 잇고 있었다. 72년 2월, 이들 중 일부가 아사마산장(淺間山莊)에 들어가 농성하며, 관리인의 부인을 인질로 잡고 기동대와 10일간에 걸친 공방전을 벌였다. 이들의 대치와 진압은 TV로 연일 실황 중계되었으며, 농성자들의 구속 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던 대원들 상호간의 린치 사건까지 밖으로 알려져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相賀徹夫 編 『日本大百科全書』(第24卷), 小学館, 1988 참조

19) 大江健三郎 「ピンチランナー調書」 『大江健三郎全作品(第Ⅱ期)6』 新潮社, 1977, p.227

20) 安部公房、磯田光一 「〈対談〉人間・共同体・芸術」 『国文学』 第17卷 第12号, 学灯社, 1972, 9, 臨時増刊号, p.12

그러나 70년대 좌파적군 사건의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60년대 후반의 대학 투쟁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른바 ‘논섹트’ 무당파(無堂派) 학생들을 출현시켰으며, 이미 그 당시에 「조직 없는 운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자기부정(自己否定)’ ‘자기변혁’이라는 그들의 구호는 ‘전체’에 함몰시키기 위한 ‘개인’의 부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된 ‘자기’를 억압된 ‘자기’로 보아 부정하고, 해방된 새로운 ‘자기’를 찾자는 취지였으므로, 그들의 투쟁은 어찌 보면 ‘자기주장’ ‘개체의 주장’의 거대한 집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그리고 이는 50년대나 60년대 초의 학생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60년대 말의 대학 투쟁 당시, 오에는 60년대 초의 미일안보조약 반대투쟁 때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주장에 어떠한 동조의 의사도 표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일본의 ‘전후(戰後)’와 기성세대에 총체적인 의문을 던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후 민주주의자’ 오에 역시 비판과 회의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오에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논섹트’로 대변되는 ‘소속되지 않을 자유’의 부상과, ‘조직 없는 운동체’에 보이는, 권위를 부정하는 동등한 관계 맺음의 시대사조는, 이후 ‘자유항해단’을 비롯한 오에 작품 속 공동체 조형에 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보인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다양한 공동체들이 언급되는 『하마에게 물리다』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이 연작 소설집은 아사마 산장 사건의 후일담 형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좌파적군들의 산악 아지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에 초점이 놓인 소설들은 아니다. 대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다분히 에콜로지의 메시지를 지닌 그 잔류파들에 의한 일본 내 새로운 공동체가 조형되는가 하면, 재미일본인 2세가 속한 미국의 코핀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수록 작품인 「죽음에 앞선 고통에 관하여」에 등장하는 청년공동체 및 그 공동체의 중심인물인 다케짱이라는 인물의 조형은, 공동체와 개체의 관계를 둘러싼 작가 오에의 다각적인 모색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다케짱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여행사를 중심으로 모여든 젊은이들과 이즈(伊豆)의 자신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 모임의 조형은 확실히 강압적인 정치 당파의 모습과도, 또한 내부 권력에 의한 린치가 행해지던 일부 좌파적군의 모습과도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당파라면 다케짱도 대학 투쟁 때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대립하는 당파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파는 그 상부에 정당을 가지고 있을

21) 市古貞次 編 『増訂版 日本文学全史 6 現代』 学灯社, 1990, pp.436-438 참조

것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당파라면 더욱더 당파로서의 강령과 조직이 있습니다. 다케짱은 그런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의 내적인 유대만을 공고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다케짱을 중심으로 한 여행사의 모임이 되었고, 더 나아가 결사 조직이 된 것입니다. 다케짱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사상도, 조직의 강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혈연관계도 아닌,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p.388)<sup>22)</sup>

이들 공동체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정치적 사상이나 조직의 강령이 아닌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이다. 과거 학생 시절, 내부적으로는 당파 내의 위계적인 질서와 외부적으로는 격렬한 당파 간 대립을 경험했을 다케짱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반(反)권위의 시대사조를 통과한 후, 자발적인 직접 대면의 작은 공동체를 꾸리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집필 시기상 『하마에게 물리다』는 『동시대 게임』과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 사이에 씌어졌는데, 『하마에게 물리다』에 그려진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 역시 두 작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전술했듯이 『동시대 게임』이 비교적 공동체 그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려졌다면, 『그리운 시절로』에서는 「개체로서 실효성이 있는 힘」을 언급하고 개체의 영혼의 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개체’에 대한 환기와 함께 미묘하게나마 ‘개체’로의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필된 『하마에게 물리다』에서는, 개체와 공동체를 함께 언급하면서도 ‘전체’를 ‘개체’의 기반으로 위치 짓고 있고, 표면상 여전히 ‘전체’에 귀속되는 ‘개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다케짱은 하나의 개체인 자기 자신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므로, 자신의 사후에도 개체의 죽음과는 다른 생명을 갖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체의 죽음으로 약간 축날지도 모르지만, 금방 원상회복하는 공동의 생명을 갖춘 어떤 것.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도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와도 같은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집단에 있어서, 자신의 개체로서의 죽음이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공포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죽음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다케짱은 말했습니다.(p.387)

에노모토 마사키는, 『하마에게 물리다』에서 개체와 전체의 문제는 굳이 에

22) 大江健三郎 「死に先だつ苦痛について」 『大江健三郎小説8』新潮社, 1997 (번역은 양역관 역 『하마에게 물리다』 (고려원.1997)를 참조했으며, 페이지 수는 원문의 페이지를 의미한다.)

콜로지적인 원환성 속에 수렴되고 있으며, 오에가 연합적군이나 신좌익 운동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는 시점을 취할 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불멸성」 「개체를 전체에서 표현하는 방법론」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나무와 이파리가 공동체와 개체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에콜로지적인 원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격한 방법으로 공동의 유토피아를 꿈꾸다 사라진 개체의 삶을 ‘불멸’의 인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에콜로지는 이 연작 소설집에서 어찌 보면 다분히 전략적으로 채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끊임없는 순환과 회복을 통해 개개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기반으로서의 ‘자연’은, ‘개체의 기반이 되는 전체’의 훌륭한 아날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작 소설집에서 ‘자연’은 단지 개체를 전체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동원된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곳에서 개체가 출현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개체가 아닌 것이 되는」<sup>24)</sup> 지점으로서 ‘전체’가 조형되고 있는 점도, ‘전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공동체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자연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진 ‘생태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때,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에게 물리다』 연작에 있어서 자연과 생태의 자리매김은 별도의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오에 겐자부로의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공동체의 흐름을 개괄하고, 공동체 사이의 공통점과 미묘한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그 변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초기 작품의 마을공동체는 ‘자율적인 생활공동체’에서 ‘국가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변해가며 그 두 성격이 갈등하고 혼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둘째, 중기 작품인 『동시대 게임』에서는 공동체의 창건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적인 소행(溯行)이 그려지고 있다. 새 땅에서 원시에 가까운 삶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동시대 게임』의 ‘마을’은, 한 주기(週期)의 문명의 시작과 진행을 담은 인류공동체의 축소(縮圖)이자, 근대국가 일본의 신

23) 榎本正樹、「大江健三郎論—『河馬に噛まれる』をテキストとして—」『現点』 No. 7、現点の会、1987、春 pp.160-163

24) 大江健三郎「四万年前のタチアオイ」『大江健三郎小説8』新潮社、1997、p.337

화와 역사를 상대화하는 대안공동체의 맹아(萌芽)로서 조형되고 있다. 작중에서는 혈통 및 지역을 경계로 한 이족(異族)과 이방(異邦)의 개념이 전제된 뒤, 이족과 이방인의 후손에 의해 마을의 역사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허구의 단일민족론을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이루어온 근대일본의 대칭점에서 근대일본이라는 ‘국가’를 풍자하는 공동체의 조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근대의 발달과 더불어 쇠락해가는 마을공동체의 부활은,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에서 「근거리 운동」을 통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마을 재건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대 게임』이 공동체 그 자체를 논하고 있다면, 『그리운 시절로~』에서는 ‘공동체’를 그리면서도 ‘개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비록 건설이 중도에 포기되었으나, ‘아름다운 마을’은 내부적으로 반(反)권위적이고 외부적으로 자율적인 코뮌의 면모를 보인다.

넷째, 오에 문학 속 청년공동체는 1960년대 후반, 근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청년세대의 저항을 겪은 후, 그러한 ‘탈권위’의 시대적 정서를 담은 채 그려지기 시작했다. 70년대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러』의 ‘자유항해단’과 『핀치러너 조서』의 ‘야마메 군단’은, 80년대 『하마에게 물리다』 연작집의 다양한 청년군상으로 이어진다. 『하마에게 물리다』의 생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동체들은 기본적으로 반(反)권력을 지향하는 자율적인 공동체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마에게 물리다』에서는 공동의 유토피아를 꿈꾸다 사라진 개체의 삶을 ‘불멸’의 인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개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기반으로서의 ‘자연’이 등장하고 있다. 이 소설들에서 ‘개체’의 기반이 되는 ‘전체’란, 에콜로지의 개념을 함의한 ‘생태공동체’로서의 특징이 보다 더 부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에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변주되고 있는 ‘산골짜기 마을’은, 초기 작품에서 <자율(재래공동체)과 관리(근대적 행정단위)가 뒤섞인 지역공동체>의 현실을 그린 뒤, <독립된 신화와 역사의 전승 공간> → <국가라는 소속의 의미를 되묻는 소규모 자율공동체> → <개체로서의 힘을 기르기 위한 근거리>의 흐름을 보이며 그 비전을 변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60년대 말의 시대사조를 거친 후 오에가 그려내기 시작한 청년공동체 역시, 마을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던 ‘권위와 억압에 대한 저항’ 및 ‘자율’이라는 이념을 공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는 대체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그리운 시절로~』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영혼의 정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체’를 향한 보다 진전된 시선의 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데니스 포플린 「코핀」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p.172
- 박유하(2008)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論-暴力の構造と共同体-』 『일본학보』 제74집, 한국일본학회
- 송인선(2008) 「エコロジーの観点から見る〈終末〉の含意—大江健三郎『洪水はわが魂に及び』論—」 『일어일문학연구』 제66집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역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2003, p.25
- 오에 겐자부로 양억관 역(1997) 『하마에게 물리다』 고려원
- 오에 겐자부로, 신인섭 역(1997) 『동시대 게임』 고려원
- 오에 겐자부로, 서은혜 역(1996) 『그리운 시절로 띄우는 편지』 고려원
- 오에 겐자부로, 이길진 역(1994) 『사육』 태학사
- 최협 외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선인, 2001, pp.41-42
-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p.43
- 安部公房, 磯田光一(1972) 「〈対談〉人間・共同体・芸術」 『国文学』第17卷 第12号(臨時増刊号), 学灯社, p.12
- 井口時男(1995) 「森の谷間の柳田国男」 『早稲田文学』通卷230, 早稲田文学会
- 磯貝英夫(1979) 「農村共同体と都市砂漠」 『国文学』第24卷2号, 学灯社
- 磯田光一(1974) 「テロルの寓話」 『ユリイカ』 第6卷 第3号, 青土社, p.77.
- 市古貞次 編(1990) 『増訂版 日本文学全史 6 現代』 学灯社, pp.436-438
- 岩田英作(1991) 「大江文学における共同体と犠牲—『芽むしり仔撃ち』から『「芽むしり仔撃ち」裁判』へ』 『近代文学試論』 29卷
- 榎本正樹(1987) 「大江健三郎論—『河馬に噛まれる』をテキストとして—」 『現点』 No.7, 現点の会, pp.160-163
-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小説9』 新潮社, 2008
-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小説8』 新潮社, 1997
-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小説5』 新潮社, 1996
-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全作品(第Ⅱ期)6』 新潮社, 1977
- 大江健三郎 『大江健三郎全作品(第Ⅰ期)1』 新潮社, 1973
- 피터·블록커, 有元健訳 『文化理論用語集』 新曜社, 2003, p.84
- 山根献(2001) 「アレゴリーとしての大江健三郎の小説の作り方」 『葦牙』 葦牙同人会編, 27号
- 吉岡亮(1999) 「大江健三郎『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発話・共同体・歴史」 『国語国文研究』 通卷111
- 米山俊直(1967) 『日本のむらの百年』 日本放送出版協会, pp.34-36

## 要 旨

大江健三郎は自分の文学を通して様々な共同体を描きつづけてきた。この論文は大江の文学における共同体の特徴を検討し、その変転の様相を捉えようとする試みである。大江が小説の中で描く共同体は、彼の故郷を思わせる谷間の村を背景とする地域共同体と、都市および近郊を主な舞台とし共同の目標を実現しようとする青年共同体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ムラ(村)という共同体は地域と血統に基づいて自然に成り立つ。それに対して青年共同体は地域と血縁を排除し共同の目標やビジョンがその共同体を支える柱となる。考察の結果、一見相異に見える両系譜の間に<権威と抑圧への抵抗>という共通の原理が作用しており繰り返し登場する同じ系譜の共同体の中にも微妙な差異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つまり、大江の文学の中で持続的に登場する谷間の村は、初期作品の中では自律的な在来共同体と近代的な行政単位としての面貌が混じった姿を見せる。それが中期と後期作品になると、独立した神話と歴史が伝承する空間→国家という所属の意味を問い直す小規模の自律共同体→個体としての力を備えるための根拠地というようなビジョンを見せつつ変転してき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個人、共同体、村、国家、 コミューン、 伝承、 近代日本

투 고 : 2010. 11. 30

1차 심사 : 2010. 12. 11

2차 심사 : 2011. 1. 08